

## 1

# 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구강보건의료 교류의 현황과 전망

<sup>1</sup>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sup>2</sup>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sup>3</sup>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sup>4</sup>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한 동 헌<sup>1</sup>, 신 터 전<sup>2</sup>, 명 훈<sup>3</sup>, 이 승 표<sup>4</sup>, 김 중 철<sup>2</sup>

## ABSTRACT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oral health services exchange from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p>1</sup>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4</sup>Department of Oral Anatom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Hun Han<sup>1</sup>, Teo-Jeon Shin<sup>2</sup>, Hoon Myoung<sup>3</sup>, Seung-pyo Lee<sup>4</sup>, Chong-Chul Kim<sup>2</sup>

South Korea's oral health car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South-North relations, although a form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is difficult to establish and also easily breaks down. Humanitarian assistance by NGOs in the oral health care sector is an area that receives wide support from South Korean society for its urgency and for its appeal to humanity. This humanitarian assistance started in the late 1990's and continued to grow until the late 2000's. This assistance continued throughout the tension between the two administrations that resulted in a radical decrease in overall assistance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However, concerns remain about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NGO activities. In this article, the NGOs and their major activities are delineated, and South Korean legislation is examined. A current act, the Law on the Develop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serves as a basis for governmental regulation and support of NGO's.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oral healthcare area is directly related to the oral health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it should not be influenced by political changes. Long-term planning and close discussions between NGOs,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e needed. NGOs need to overcome their shortcomings such as a lack of expertise and shortage of financial support. For this, NGOs must improve their administration transparency and professionalism.

Key words : Humanitarian assistanc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Oral healthcare

## Corresponding Author

한동헌 부교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전화 : 02-740-8780, 팩스 : 02-765-1722, 이메일 : dhhan73@snu.ac.kr

## I. 서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196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70년대 들어 대한적십자사가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경제인 및 물자 교류 제의(1973년)가 이루어졌고, 북한적십자사의 수재물자 지원을 계기로 남북경제회담(1984.11~1985.11.20.)이 열렸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국제적 격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사회체도를 경쟁적으로 발전시킨 남북한 관계도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간 공식적, 제도화된 교류는 많은 준비를 요구하며, 그 노력에 비하면 예상 못한 장애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남북 경협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발표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남북 교류협력을 원칙적으로 보류·중단하기로 하였다<sup>1)</sup>. 다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사업 및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비정부단체를 통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남북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지속될 필요가 있다. UN 인도지원조정실(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인도적 지원을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개입 활동'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보건 및 위생을 포함하였다<sup>2)</sup>. 또한, 보건의료부문은 지원의 정당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sup>3)</sup>, 모니터링이 명확한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활동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 등 정부간기구 뿐만 아니라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sup>4, 5)</sup>. 특히 NGO들은 1998년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와 2000년 이후 대북식량지원 제도화로 활발하게 남북한 교류사업을 이끌었고, 이들의 활동은 남북대화가 단절된 시기에도 남북관계 개선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sup>6)</sup>.

구강보건의료부문의 지원은 지원으로 인한 수혜국 보건의료체계 교란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지원 즉시 효과를 볼 수 있고, 수혜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보건의료지원보다 크기때문에 남북교류의 효과가 큰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980년대 말부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부족과 불균형 경제의 모순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파탄 때문에 구강진료기구·장비와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구강진료는 기본적인 진료만 수행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주민은 초기 구강병을 방지하여 심각한 구강건강 상실에 이르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NGO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국제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구강보건부문의 인적·물적 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현재 남북한의 구강보건교류사업을 파악하는 일은 향후 북한 구강보건사업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남북 통합 이후 구강보건의료체계의 창의적 지원개발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남북 비정부기구 지원 및 단체의 현황과 남북교류실태

### 1.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

1995년에 시작된 대북지원은 분유, 옥수수, 의약품, 의류 등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단계로 시작되었다. 1997년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해 북북동포돕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동년 5월 말, 식량과 더불어 기근으로 인한 질병과 영양실조로부터 북한주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약품도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범보건의료인 차원에서 전개하기 위한 ‘(가칭) 북한어린이 살리기의약품지원본부’가 제안되고, 6월 28일, ‘북한어린이 살리기의약품지원본부(이하 의약품지원본부)’의 결성식이 열렸다. 의약품지원본부는 의사(심재식), 치과의사(유영배), 한의사(홍학기), 약사(임종철), 간호사(최선임)가 공동대표를 맡아 보건의료인이 공동으로 북한지원교류를 진행하였다<sup>6)</sup>.

## 2.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이 시기 의약품지원본부 및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통해 구강용품 지원을 시작하여 2001년 12월, 구강외과 세트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2년 3월,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치과유니트체어 2대를 포함한 치과재료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2003년 9월, 평양의과대학병원 등에 유니트체어 5대 및 관련재료를 지원하였다. 2004년 3월, 평양의학대학병원과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보철실 설비 현대화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3월, 치과유니트체어 5대, 파노라마방사선촬영장비 1대와 구강진료의약품 등을 지원하였다<sup>7)</sup>.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2004년 12월 중순, 중국에서 열린 남한 대북협력민간단체회의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 사이의 ‘2005년 남북교류사업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2005년 북한물품지원과 학술교류사업추진을 합의하고, 2월 22일 남북구강

보건학술교류사업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후 2005년 10월 3일, 조선적십자병원 구강병원 7층 강당에서 남북학술교류가 열렸으며 연제로 악교정수술(이희원, 인제대학교), 근관치료(황호길,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성공적 보철치료(노양균, 인공치아 이식술(오승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교정학(전장화) 및 시연이 있었다<sup>7)</sup>.

## 3.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장비 및 물품지원사업 단계를 지나 범치과계의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사업으로의 발전은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대화사업 특별위원회 간담회로 시작되었다. 2005년 11월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06년 1월 11일 ‘(가칭)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가 구성되었다<sup>8)</sup>. ‘(가칭)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는 동년 2월 28일,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평양조선적십자병원 내 구강수술장 현대화 및 남북치의학 공동학술대회 사업을 위한 합의를 체결하고<sup>9)</sup> 3월 30일,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로 창립하였다<sup>10)</sup>. 남구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범 치과계가 남북교류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구협은 첫 사업으로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여 2007년 11월 4일,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전문병동 구강수술장 및 약무병동 준공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sup>11)</sup>.

남구협은 2007년 10월 9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과 ‘개성공단 이동구강병원 설치’ 사업에대한 합의를 체결하여 개발총국과 남구협이 개성공업지구 내 북측 노동자들의 구강치료를 위해 버스를 이용한 이동구강병원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며 남구협은 이동

치료를 위한 버스, 구강치료설비 및 설비운영, 보철에 필요한 장비,약품, 사무비품을 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sup>12)</sup>.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업지구 이동구강병원 사업은 이동구강진료차량은 준비가 되었지만 개성공단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국내의료봉사용으로 활용되다가<sup>13)</sup> 2012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성공업지구의 남한 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처음 실시하였다<sup>14)</sup>. 이후 개성공업지구 구강보건사업은 현재까지 이동구강진료차량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다<sup>15)</sup>.

남구협이 출범하면서 계획했던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대화, 남북치의학 공동학술대회, 개성공단 이동구강병원 설치, 치의학학술도서 지원<sup>16)</sup> 등의 사업 중 원래 취지대로 이루어진 것은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대화사업 뿐이다.

#### 4. 남북치의학교류협회

한편, 2001년 7월 11일에 남북 치의학 교류를 통해 북한 치의학계 발전에 기여하고 북한에 부족한 치과기자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남북치의학교류협력위원회가 창립되었다<sup>17)</sup>. 남북치의학교류협력위원회는 2005년 9월 24일 금강산 온정인민병원 치과진료소를 개소해 남북치의학교류 및 주민치과진료를 해왔다<sup>18)</sup>. 2006년 9월에는 ‘북한/북측 구강의학용어집’을 발간하여 남북한의 이질적인 치의학용어를 이해하고 향후 남북한 치의학교류의 초석을 다졌다<sup>19)</sup>. 이후 명칭을 남북치의학교류협회(이하 남북치교협)로 개칭하고 2012년 8월, 산하에 남북 치의학 교류를 위한 각 단체간 교류를 통해 북한 치의학계에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위한 연구와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통일치의학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sup>20, 21)</sup>. 남북치교협의 금강산 온정인민병원 치과진료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 5.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는 공동으로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사업본부를 꾸리고 평양 제1인민병원 내 구강병동을 개보수하고 치과의료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2007년, 북한의 민화협에 치과병원 건립을 제안, 합의하여 실무를 진행하면서 북한 식량지원사업을 펼쳐온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와 인천광역시 및 지역의 언론사, 그리고 건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2008년 10월 7일, 4대의 치과유니트체어를 갖춘 평양시 제1인민병원 구강병동 준공식을 가졌다<sup>22)</sup>.

### Ⅲ. 결론

구강보건의료부문은 단기적 약품지원 형태의 사업에서 구강병원현대화사업이나 학술교류사업 등 장기적 사업으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북 구강보건의료지원사업은 장기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계획, 실행에 있어 구호, 재건, 개발의 연관성을 갖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와있다<sup>23)</sup>.

민간단체를 통한 구강보건부문의 인도적 지원을 살펴보면 다양한 치과계 단체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단체 대부분이 평양에 한정되어 활동하고 있어 사업 대상 지역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구강보건의료분야에서는 치과의료장비의 지원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쪽의 민간단체는 소모품 지원에서 시작하여, 구강병원의 신증축사업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성과를 얻고 있다. 치과의료장비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지원이 많이 되었지만, 2009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부터 물자지원 총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2009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적 도발로 말미암아 남북 간의 구강 보건교류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교류 감소는 구강병원현대화 사업 및 학술 교류 등 북한 구강보건의료체계의 인프라 구축을 더디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NGO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 간 정치적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일부<sup>24)</sup>에 따르면 현재 남북관계의 악화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감소하고 있다(표 1).

2014년 대북지원 총액은 195억원으로 정부차원 141억, 민간차원 54억원으로 제재조치 이전의 지원과 비교해볼 때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주소를 직시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10월<sup>25)</sup>, 2015년 3월<sup>26)</sup> 통일부 당국자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향후 대북지원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 중심의 구강보건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점은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이

다. 지금까지 특정지역, 특정사업에서만 그 역할을 하던 민간단체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구강보건의료체계는 일회성 물자지원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만큼 인적, 물적으로 기반이 취약하며 남한과의 이질성이 크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구강건강상태와 직결되는 구강보건의료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연계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NGO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정적 취약성도 극복해야할 문제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시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 치과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치의학의 통합할 역량을 지닌 연구자 및 지도자를 육성하여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표 1. 대북지원 현황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차원	무상지원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3	141
	식량차관	1,787	0	1,505	0	0	0	0	0	0	0
민간차원(무상)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51	54
총액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183	195

## 참 고 문 헌

1. 남북교류협력 개관. 통일부. Available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25>
2.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Peacebuilding and linkages with humanitarian action: key emerging trends and challenges [Internet]. New York: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2011 [cited 2013 Apr 23]. Available from: <http://ochanet.unocha.org/p/Documents/Occasional%20paper%20Peacebuilding.pdf>.
3. Ahan DK. The evaluation of the role of NGOs in the process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21st Century Polit Sci Rev 2007;17:87-119.
4. Kim TU. Current status of EU-North Korean diplomatic relation and its political background. J Polit Sci Commun 2001;4:229-253.
5. Financial Tracking Service. Korea DPR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2012 [Internet]. New York: Financial Tracking Service; 2013 [cited 2013 Apr 23]. Available from: [http://fts.unocha.org/reports/daily/ocha\\_R5\\_A975\\_\\_\\_\\_\\_1303280205.pdf](http://fts.unocha.org/reports/daily/ocha_R5_A975_____1303280205.pdf).
6. 북한어린이살리기의약품지원본부. 동아일보. Available from: <http://www.donga.com/docs/adv/childhelp/2.html>
7. 건치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의 경과보고. Available from: [http://www.nkhealth.net/INC/download.php?code=sub\\_0301&number=100&filenum=0](http://www.nkhealth.net/INC/download.php?code=sub_0301&number=100&filenum=0)
8. 치협 등 범치과계 공동 참여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구축. 치의신보 2006.01.19. Available from: <http://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36676>
9. 남북구강보건사업 추진 본격화 구강수술장 현대화·공동학술대회 합의서 체결. 치의신보 2006.03.13. Available from: <http://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37509>
10. "치과계 대북사업 한목소리 낸다"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발족식 성료. 치의신보 2006.04.06. Available from: <http://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37969>
11. "남북 협력사업 성과 거뒀다"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전문병동 구강수술장 준공. 치의신보 2007.11.15. Available from: <http://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47187>
12. '개성공단 이동구강병원 설치 사업' 추진 남구협·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과 합의서 체결. 치의신보 2007.10.18. Available from: <http://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46654>
13. '이동치과병원' 전국 누빈다. 치의신보 2009.05.28. Available from: <http://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56360>
14.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첫 치과진료 - 남구협, 매월 진행. 치의신보 2012.02.16. Available from: <http://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72752>
15. 남구협, 남북 구강보건의료 단독 전담, 개성공단관리위와 MOU 체결,북측과 치의학 교류 확대키로. 치 의 신 보 2015.03.24. Available from: [http://m.dailydental.co.kr/main/board\\_view.php?no=88968&module=list\\_hdl&code=2&page=1&row=20](http://m.dailydental.co.kr/main/board_view.php?no=88968&module=list_hdl&code=2&page=1&row=20)
16. 북에 치의학 전문 학술서적 지원 치의학 학술자료실·도서실 설치사업 추진도. 치의신보 2006.09.25. Available from: <http://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40552>
17. 남북 치의학 교류 물꼬튼다 치협·학계 주축 협력촉 결성. 치의신보 2001.07.14. Available from: [http://www.dailydental.co.kr/mobile/section\\_view.html?no=16381](http://www.dailydental.co.kr/mobile/section_view.html?no=16381)
18. 원 많아야 평화 메아리" 남북치의학교류협력위 이병태 상임위원장. 치의신보 2006.04.10. Available from: [http://www.dailydental.co.kr/mobile/section\\_view.html?no=38056](http://www.dailydental.co.kr/mobile/section_view.html?no=38056)
19. "北 아이들 구강상태 엉망" 2년간 치료봉사 이병태 위원장. 경향신문 2006.10.19. available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0191834241&code=10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0191834241&code=100100)
20. '통일치의학 연구위원회' 설립 - 남북치교협, 초대 위원장에 김병찬. 치의신보 2012.10.11. Available from: <http://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76262>
21. 남북치의학교류협 통일치의학연구위원회 김병찬 초대위원장 "통일치의학시대 대비할 것". 덴탈아리랑 2012.10.25. Available from: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

## 참 고 문 헌

22. 인천 지역사회가 지원한 평양 '거래하나치과'. 다정다감 2008.10.20. Available from: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658061>
23. Lee JM. Manuscript for international system of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 for South Korea:present and future of North Korea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sect [Internet]. Seoul: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2004 [cited 2013 Mar 20]. Available from:[http://www.nkchannel.org/contents/?doc=bbs/gnuboard.php&bo\\_table=pds&sselect=wr\\_name&stext=%11](http://www.nkchannel.org/contents/?doc=bbs/gnuboard.php&bo_table=pds&sselect=wr_name&stext=%11).
24. 대북지원 현황. 통일부.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
25. 통일부 "5·24 조치 해제, 기존 입장변화 없어". 매일경제 2014.10.14. Available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0113>
26. 정부, "남북 대화 재개되면 5.24조치 해제 논의". 노컷뉴스 2015.03.26. Available from: <http://www.nocutnews.co.kr/news/4388517>